

# 위험의 상징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대학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小考)

민웅기 \*

- I. 서론
- II. 융합형 대학교양지식의 학습과 공유
- III. 위험의 상징적 확산과 새로운 사회연대의 가치
- IV. 사이버 사회에서 요구되는 대학 교양교과의 정체성
- V. 결론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정보통신혁명에 기반을 둔 사이버 사회의 도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의 상징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대학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하기 위해 기술되었다. 현재의 시대적 특성 중 하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융합문화적 성격의 이념적 의미가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의 발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대의 가치는 결국 인간의 주체적 사고가 네트워크화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같이 본격적인 사이버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문,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대학 교양교과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융합형 교육내용이 개발되고 있다. 대안적 성격의

\* Mokwon대학교 창의교양학부, 부교수, sunppk@mokwon.ac.kr

대학 교양교육은 그간의 소양, 인성교육에 더하여 새로운 위협의 상징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독립된 융합학문 분과로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대학 교양교육, 위험, 네트워크, 사회연대의 가치, 사이버 사회

## I. 서론

최근의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그 이전의 산업사회, 농경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기술이 연계된 융합기술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적 기제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인간 존재의 의미에 부과하는 사상적, 이념적 가치까지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인간과 사회의 본원적 의미를 설명하는 진리체계의 철학적 분기로 인해 삶의 실재와 관련한 단일 질서의 문화적 코드가 탈중심화되고 있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성찰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융합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인간은 물질적 풍요로움만을 누린 것은 아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산업구조의 새로운 재편 과정으로 인해 표준화된 삶이 인간에게 강요되었고, 기존 직업군의 변화와 함께 기계와 기술에 의해 사회구성원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을 침해당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사이버문화의 급성장으로 기존 위험의 범주와 다른 성격을 지닌 또 다른 사회적 산물이 위험을 야기하는 요소로 인간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 위험이 영향을 미치는 시공간적 범위는 더욱 넓어져만 가고 있다.

이처럼 세계가 하나의 시공간으로 네트워킹되고 있음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질병, 바이러스로 인해 소위 말하는 위험의 네트워크가 세계적 수준에서 형성되면서 과거에 간과했던 지구적 차원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재귀적 사고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급속히 나타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와 교육 격차, 그리고 국가 간 나타나고 있는 계급 격차의 발생은 세계체제론, 종속이론과 같은 과거의 비판사회학적 관점에 근거한 전통적 사회과학 이론을 회귀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같은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여 사회의 각 교육기관들은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는 시의성을 갖춘 학습 콘텐츠의 개발 및 전수 과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간을 사회화시키는 주요 기관인 학교의 경우, 특히 인간이 새롭게 겪는 위험사회에 원천적으로 적응,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공유와 개방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교육체계 중 고등교육체계라 할 수 있는 대학교육은 마지막 학령기를 겪게 되는 학생들이 노동 세계에 투입되어 본격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이전의 최종 단계에서 진행되는 학습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한 개인의 일생에서 중요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학 교양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상술한 문화적 변화의 산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체화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특히 전공교과와는 달리 대학 교양교과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추구해 온 보편적인 인간 중심적 가치를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위험과 새롭게 닥칠 위험사회의 문화코드를 미리 체험하고 학습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체계로 여겨진다.

이처럼 대학 교양교육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의 상징적 교환 과정에 필요한 대안적 교양교육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위험사회 적응에 필요한 이성적 지식과 감성적 상상력을 동시에 구현해 준다. 그리고 그 교육 콘텐츠에는 사회연대 가치에 입각한 인류학적 삶의 균형을 맞추는 승화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학 교양교육의 근간이 되는 소위 융합형 상상력에 대한 학습은 인간에게 가해지는 위험에 인류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본원적 대응의 질서를 형성시켜 준다.

최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동시에 지배하는 사회환경은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위험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

과 전망이 사실상 어려운 현시대 상황에서 각 대학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양교육 콘텐츠를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즉 위험사회 적응을 위한 지식구조의 적용 및 직접적 상황 대입이 가능한 지식의 수준별 층위를 유지하면서 이 지식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하여 위험사회 극복에 필요한 통합형 인재 발굴을 위한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인문·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대학 교양교과가 지녀야 할 정체성과 이를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융합형 대학교양지식 학습의 필요성을 고찰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사이버 사회의 도래가 가져온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험의 상징적 확산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연대 가치의 본원적 의미를 기술할 것이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대안적 대학 교양교육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II. 융합형 대학교양지식의 학습과 공유

현대사회는 융합혁명의 기술적 발전이 가져온 물질적 풍요로움 이면에 위험이 다양한 상징의 형태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교환되고 있다. 지구적 수준의 사이버 사회로의 전이 과정에서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나의 노드(node)가 지닌 개인적 능력이 강화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개인들이 활발하게 네트워크화되면서 인류 공존에 필요한 사회연대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연대적 문화코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잘 나타났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 주변의 변화된 환경이 비가역적이라 생각하면서 시대적 트라우마에 대한 다양한 객관적, 주관적 의견을 사이버공간상에서 표출하였다. 그리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집합기억은 집단적 상상력과 함께 그들의 인식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민용기·김상학, 2021, 62-66; Halbwachs, 1980).

현대사회의 특징을 명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인 포스트모더니즘은 현재 온라인 세계라는 이 새로운 집합적 공간에서의 문화적 연대를 도모하는 것에서부터 문화의 소규모 집단화 과정을 통해 동질적 문화의 상품화를 이끌기도 한다. 그리고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고급과 대중, 진정성과 허위성, 실재와 모사 등의 이분법적 논리를 무너뜨리는 내파(implosion) 현상이 유발되고 있다(김정효, 2020, 32-33).

또한 최근 들어서 새로운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치가 내재된 융합형 교육 체계가 나타나고 있다. 한때 인문학과 사회과학 영역에서 주요 학술적 논쟁 대상이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포스트(post)를 단절적 의미인 ‘탈(脫)’의 뜻으로 해석할 것인지 연속적 의미의 ‘후기(後期)’의 뜻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사상적 담론 구조는 꾸준히 변용되면서 논의되어 오고 있다(이진우, 1993). 이 양방향적이면서도 역행적 성격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코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개인화 문화 속에서도 타인과의 공존을 위한 협업이 중요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긴밀한 관계성에 기인한 연결고리의 확장은 집합적 연계망의 확보와 함께 개인적 삶의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시켰다. 소위 유연사회(flexible society)로의 시대적 전환은 인간의 변화된 생활리듬의 형성을 주도했다(김문조, 2013). 더군다나 격리된 삶을 영위해야만 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며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구조의 창출이 가능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및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의 대두는 인간 생존을 위한 복합적 생활공간 영역으로서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생활환경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변화된 문화적 영향으로 융합형 교양지식체계의 학습과 공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는 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양교육 학문 간 소통체계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교양지식들이 인간 생존에 요구되는 기본적 생활환경과 함께 별도로 파생되는 위험상황에서 유기적으

로 활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실질적 문제해결 능력을 구현하는데 각 대학은 주력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양지식 콘텐츠를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려면, 해당 지식과 관련 있는 이론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통합적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 창의적 지식체계는 도구적 가치 함양을 비롯하여 가치론적 측면에서도 인간 생존이란 본원적 역량을 강화하는 대안적 학습 콘텐츠로서 의미가 있다. 대학이라는 사회화 기관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치에 내재한 상징적 상상력 속에 포함된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비합리적인 영역의 사회문화를 학습자들이 충분히 이해, 해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적, 융합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는 인간의 의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인간이 과거부터 어떠한 우연적이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사회문제를 경험했었는지를 지금에 와서 하나씩 재귀하고 파악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지식 콘텐츠와 학습방법이 융합적 교양지식체계 속에 융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학습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대안적 교수법들이 개발되면서 그 융합형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돌발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지식의 학습과 공유는 이미 대학 교양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와 학생 간 양방향적 의사소통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

새로운 문화적 가치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본격적인 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해진 학습 과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개인 자유에 대한 사고를 인정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 가는데 필요한 사회정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사회네트워크가 복잡하고 견고해지면서 과거에는 무시했던 여러 가지 위험상황을 인간이 직접적으로 직면함에 따라 타인과의 신뢰에 근거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학습과 구성 과정에 대한 성찰적 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Putnam, 1993; 1994). 이것은 사회정의의 근간이 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체득해야 할 인성교육이라는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체계가 또 다른 학습 과정으로 수렴됨

을 의미한다. 그 사회적 자본의 질서 속에서 대면과 비대면 관계망 내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요소의 예방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를 대학 교양교육 체계에서 교육하고자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여러 대안적 지식 전달 과정은 대학교양지식 학습자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대학 교양교육 체계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대학교양지식의 학습과 공유를 위한 형식적, 내용적 준비를 갖추어 왔다.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 및 가치의 공유 속에서 각 학문 영역 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융합형 지식체계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초 소양교육 및 윤리적 가치 함양을 위한 융합형 대학 교양교육 체계 구성에 대한 논의는 학술적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 III. 위험의 상징적 확산과 새로운 사회연대의 가치

위험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기제들은 거시적 측면의 사회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상생활에 침투하여 생활세계에도 변화를 야기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신종 바이러스로 발생하게 된 각종 위험 기제들이 확장되었는데, 결국 이를 막기 위한 격리 조치들로 인해 인간이 대응하는 네트워크 구조와 함께 사회구성원 간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적 가치의 구현 역량이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 코로나 시국과 같은 사회적, 환경적 위험이 닥쳤을 때, 인간은 격리되어 물리적 거리감을 유지해야 했었지만, 그 자체의 분리된 문화적 객체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방향으로 연결망을 확대해나갔다. 경제적 위기에 의한 일자리 부족 문제나 왜곡적 정보 확산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안정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당시 사회구성원 모두는 서로 바란 것이다. 물리적 이동과 장소에 기반을 둔 만남의 기회는 줄어들었으나, 일상적 삶과의 연결형 문화의 확장을 통해 성, 지역, 연령 등에 관

계없이 여러 신념과 가치들이 네트워크망 속에서 공통된 정체성을 이루면서 새로운 연대를 맺어 나갔다. 그리고 그러한 연결망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그런데 전술한 삶의 구조화 과정에서 여러 형태로 발생한 문화적변 현상으로 인해 다차원적인 문화적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숨겨져 왔던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대면 상태의 의사소통 연결망은 여러 가지 일탈과 범죄 현상을 야기하기도 했으며, 한번 무너진 신뢰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이처럼 발생한 사회 갈등은 여러 위험요인을 관계망 속에 전이시키기도 했다. 개인의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정보 노드의 다차원적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위험 질서와 공포, 무기력 등의 역기능적 문화도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위험의 상징적 확산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추구해 나가게 되었다. 이 안전문화는 인간이 오랜 기간 활발하게 쌓아온 의사소통 구조 속에서 구성원 간 합의된 보편적 가치로서 존재해왔다. 그 문화코드를 축적하고자 사람들은 과거의 집합기억을 공유하면서 체화된 위험환경의 극복을 함께 시도하고 있다. 금지성 규약만으로는 개인 네트워크망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온라인 공간의 행위자들은 모두 권장성 규약을 확대함으로써 인간의 현재와 미래 삶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배제한 안전한 문화질서를 구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로 위험의 상징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연대의 가치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위험이 다양한 상징적 요소에 의해 확산된다(백, 2006; Giddens, 1997).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직접적인 위험도 있지만, 사실 이 위험은 기존 사회적 규범체계와 지식 범위의 축소로 나타나는 무규범 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사회를 지배한 의식체계의 통제 기제가 더 이상 사회질서를 규정짓는 가치로서 인정받지 못할 때 사회구성원들은 개인적으로도 공동체 구성원으로도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 이때 그러한 위험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대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식체계나 다양한 상징적 문화 도구를 활용하게 되는데(Giddens, 1997), 과학기술은 이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올바르게 못한 지식의 전달로 인간을 더욱 위험상황에 봉착하게 만들기도 한다. 위험의 상징적 확산은 각 개인의 독자적인 사고방식이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연결될 때 큰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특히 과거의 집합기억을 통해 현재를 해석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집합기억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시급성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Halbwachs, 1980). 이 과정에서 신뢰에 근거한 사회연대의 가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과학기술은 다양한 위험환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회 질서가 정착될 수 있게 하는 좋은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위험예측을 위한 합리성 경쟁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예측된 위험상황과 관련한 사이버공간 내 정보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충돌과 갈등 역시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문화적 합리성 간 갈등 문제는 안위(安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전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사회의 네트워크 체계는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도구적 기능을 한다. 개인화 시대에 독립적 가치들이 하나로 융합되도록 하는 집단 정체성의 발현을 위한 연대성 문화 코드의 토대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인간의 자아는 소위 집단지성을 결합하여 개별적 수준의 성찰적 기획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불안정한 자아상을 스스로 진단하고 관계망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에 의지하게 된다. 이 같은 사고 기준은 객관적이면서도 명확한 가시적 증거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감성적 사고의 산물일 수도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한 사회의 집단구성원들이 모두 체험한 사건을 통해 형성된 집합기억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민용기·김상학, 2021, 76-78; Halbwachs, 1980).

특히 위험의 상징적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연대적 가치의 토대는 역설적이게도 각 개인의 지식과 상상력이 논리적으로 축적되면서 구성된

다. 최근의 융합혁명 시대에는 그 개별화된 가치가 더욱 세분화되어 지속 가능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결국 불안정한 상황을 극복하고 안전에 대한 심리적 욕구가 정착되려면 인간 개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관계망 내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위험 대응 방안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인간의 본원적 욕구와 관련한 위험 극복 문화의 인문학적 가치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타자의 위험이 곧 자신의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집합 기억의 재탄생에 대한 고찰이 사회과학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민용기·김상학, 2021). 이 논의의 내용이 현재 위험의 상징적 상황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연대적 가치의 학습을 위한 하나의 교육 콘텐츠가 될 수가 있다.

갓가지 위험상황이 상존하는 4차 산업혁명기에 필요한 사회구성원들의 학습을 위해 대안적 대학 교양교육 콘텐츠 역시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문학적 소양에 근거한 인간의 감성적 상상력의 배양은 사람들이 합리적, 비합리적으로 인식하는 융합적 사고 과정에서 가능해진다. 인간의 감성은 인식 대상의 유용성에 대한 기대 정도뿐만 아니라 환경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기호적, 상징적 가치에 대한 욕망에 이르기까지 그 진폭이 다양하게 해석되도록 만든다. 이 현상은 결국 인간의 진정한 욕구의 실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회구성원들은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목적합리적, 가치합리적인 행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험의 상징적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돌봄 네트워크 시스템은 인간 신뢰 구조의 연결망을 강화하여 개인을 감정적으로 안심시킨다. 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은 지역공동체, 지역문화 등에서 나타나는 특정 위험을 둘러싼 기억 공유 및 공동 대응이라는 실천 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복지라는 특정 제도적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위험 대응체계와 관련한 심리적 안정감 부여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대학 교양교육 내용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번 구축된 사회적 안전망은 사회체

계에 대한 인간 간 신뢰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개인이 안전을 감정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사회 전체의 문화는 이성적 관점의 존재론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기술은 사회연대 가치의 공유체계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위험을 올바르게 발견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식 전달 과정을 추동한다. 위험의 상징적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생존 여부에 대한 염려는 과거 시민들이 함께 겪은 위험상황과 관련한 집합기억이 개인에게 상존하는 상황에서 집합적으로 재구성된 시간적 추이를 따라 표현 되기에 이른다(민웅기·김상학, 2021, 58-62).

요컨대 융합사회에서 연대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관련 네트워크 구조와 관계망 속에 내재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바라는 사람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로운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코드 사이에서 나타나는 융합현상은 외부환경의 통제 기제에 효율성의 원리로만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러한 위험 사회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사회문제에 대한 단선적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공유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함을 더욱 일깨워준다(김문조, 2013).

이제 사회구성원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그 영향력에 대응하여 여러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려면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대학에서 사회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의성 있는 교양교과가 개발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위험상황의 상징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과 관련한 다양한 대학 교양교육을 구성하는 학습 내용은 인간 생존의 네트워크 구조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인식론적 토대로 작용하게 된다. 인간 개인의 위험과 관련한 논의들은 이제 집합적 수준에서 환기되어야 할 주요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도 각 대학에서는 새로운 교양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이러한 위험의 상징적 확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연대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학습 내용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IV. 사이버 사회에서 요구되는 대학 교양교과의 정체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과정은 인간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본격적인 네트워크 사회를 살아가는데 거시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기를 맞이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생활 영역으로 새롭게 자리 잡은 사이버공간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확장을 통한 교양교육의 중요성도 부각시켰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간과했던 가치와 이념, 현상 등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지각하기 시작했다. 위험상황의 상징적 확산 현상은 그와 같은 새로운 문화를 추동하는 원인이자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학 교양교육에서는 기초 학문 분야에 기반을 둔 전통적 인성교육 체계와 함께 다채로운 시공간 내 체험 관련 교육에 관여하는 응용지식 영역을 융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인간 개인의 감정 영역은 각자의 성찰적 사고의 가치를 제고하게 만든다(Beck & Beck-Gernsheim, 2001).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인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대안적 교양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간 개개인이 원하는 분절화된 지식을 학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 교육체계는 전공영역과는 또 다른 다채로운 교육 커리큘럼으로서 피교육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인간의 적응과 관련하여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위험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제도 및 커리큘럼의 구성이 필요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인간 삶의 기본 영역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공간은 기존에 없던 문화적, 환경적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을 발현시켰다. 이 상호작용 속에는 사이버 사회를 이루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향유하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의미가 숨겨져 있다. 이제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과거 산업사회를 지탱해온 소위 시장만능주의의 폐해에서 비롯된 인간 소외의 감정과 다양한 위험의 상징적 확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생활 가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 사회의 다양한 위험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극복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범주의 지식 전달을 위해 직접적인 정보통신기술 관련 지식체계의 학습을 주도하는 공학적, 자연과학적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더 포괄적 의미에서 인간 삶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해당 전공분야 지식 외에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문화적 체험교육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근대 이후 인문·사회과학 교양교과가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학문적 가치를 충실히 전승하면서도 시의성 있는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배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사회과학 기반 교양교과는 기초 학문 분야로서 추구해 온 가치를 사람들에게 익히게 하고, 사회 적응을 위한 유연한 사고를 체화시켜 객관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현실에 맞게 융합적으로 적용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발현되는 문화를 개념화하는 본원적 의미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지식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개방된 지식의 검색, 수용, 학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학습 과정은 사이버 사회 내 정보문화 관련 시민교육을 통해 실현가능하다.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 등을 아우르는 시민교육은 사회질서의 안정화를 위한 역량 기반 교양강좌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개인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대의 가치 역시 이 같은 가치 추구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복잡계의 가치 네트워크에 의한 협력적 교육 콘텐츠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지식생태계가 물리적 지식플랫폼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개별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 지식플랫폼에서는 지식 콘텐츠가 공유대상에 따라 정보와 물질, 관계 등으로 분류된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식자원 관련 정보와 구체적인 체험 콘텐츠, 그리고 지식 생산자, 전달자 및 소비자 간 관계 네트워크 체계의 안정적 구축 과정 등에 관한 지식 콘텐츠를 의미한다. 지식시장에도 프로슈머(prosumer) 개념이 도입되고 거래와 관계에 대한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지식 생산자, 전달자, 소비자 간 상호작용이 더욱 중요해졌다. 교육 영역에

서는 온라인 가상공간 내 지식 콘텐츠 개방체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에 접속한 개인이 새로운 문화코드 형성에 직접 참여하여 클라우드 문화 지식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즉 학습자의 지식 콘텐츠 소비에 부응하는 개방된 지식에 근거한 온라인 플랫폼 구성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지식플랫폼과의 상생적 질서는 지식 공유를 통해 가치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사회적 공유가치의 창출 및 분배 질서로 이어진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이버 사회에서 추구하는 지식 창출 및 소비 구조는 흔히 합리성에 근거한 논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연히 들어가게 된 사이버공간 내에서 약한 연대(weak tie)를 맺고 있는 타인과의 우연적 접촉으로 사회적 행위자의 지식 전달만으로 관련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연한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적 인식체계와 관련하여 그간 형식화, 문서화되지 않은 암묵지가 온라인 공간의 담론을 통해 형식지로 변화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인간 개인에게 다가온 이 우연의 문화는 그동안 개인의 자유 가치에 밀려 큰 힘을 부여받지 못했던 사회통제의 부재에 대한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연대 가치로의 전환을 위한 심리적 준비 태세를 갖추게 만들었다. 본격적인 사이버 사회의 질서에서는 합리적 사고체계에 의해 현실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인간의 이성적 판단뿐만 아니라 지구촌 구성원들의 연대적 가치에 입각한 관조적, 감정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변화된 지식 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동안 복잡한 가치관 갈등 속에서 직접적인 대면적 의사소통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의 학습과 교육체계를 온라인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안적 대학 교양교육 콘텐츠의 구성을 두고 교육자들은 또 다른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인간 개인의 이념, 사상, 가치, 권리, 의무 등의 기초 개념을 넘어 새로운 지식 담론 구조 형성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위 사회화 교육과 관련하여 인간의 문화적 자립, 생존 역량 함양을 위해 그간 축적된 지식체계를 고찰하는 일은 교육자 및 관련 기관의 주요 과업 중 하나이다. 학습자 역시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관련 교육내용을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선(善), 윤리, 공존 등과 같은 가치 교육과 여러 학문 분과별 정체성이 표현되는 전문 기초지식 교육 모두는 여전히 현대사회에 필요한 지식 콘텐츠 전달 과정으로서 인간의 문화 적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새로운 사회문화를 야기했다. 바이러스로 인한 대면적 마주침의 단절이 지속되긴 했지만 그와 반대로 그동안 발달해온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온라인상의 마주침과 의사소통에 의한 사회연대의 질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대학교육 역시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는데, 특히 교양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떤 방향에 윤리적 가치의 잣대를 맞추어 포괄적 규범과 관련한 상징적 지식 전달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인간 실존의 가장 중요한 욕구 중 하나인 위험상황 극복에 대한 논의 역시 온-오프라인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사례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보편적 학습 설계 과정에 기반을 둔 가치, 사상 등에 관한 교양교육 학습체계 운영 과정을 전면적으로 조절해야만 했다. 이를 담당하는 교수 역시 코로나 시국 초반에는 앞서 언급한 그 우연성의 강력한 구조적 영향력에 혼란스러워했으며, 관련 지식 정보를 개발하고 공유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다.

시공간의 압착을 가져온 소위 언택트(untact) 교육과정의 설계와 순수학문으로서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윤리적 지식체계의 융합 과정에 효율성 가치에 기반을 둔 기술적 네트워크와 매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치가 함께 결합된 새로운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지적 측면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네트워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교육자와 학습자 간, 교육자 간, 학습자 간 정서적 네트워크가 지원되었다. 또한 교양교육 콘텐츠

의 내용 및 전달 수단에 관한 선택권이 개인에게 주어지기도 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어온 학습 환경 맥락에 따른 학습 콘텐츠를 둘러싼 개인 간 새로운 상호작용이 설계된 것이다(로즈 외, 2010).

정보통신혁명과 코로나 사태라는 급격한 구조적 사회변화로의 적응을 위해 새롭게 다양한 교수법을 통한 지식 전달 과정 개발 및 기존 교수법의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각 대학은 다방면으로 변화된 환경에 사회구성원들이 적응하도록 보편성을 띤 지식 학습 구조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보편적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는 모든 학습자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권리를 지지해 준다는 개념이기도 한데, 이 교수법은 직접적인 지식 표현을 지원함과 동시에 감정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자에게 학습 선택권을 제공하게 된다(로즈 외, 2010).

최근 사이버 사회 내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메타버스 세계관이 교육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기술과 연계된 교양지식 콘텐츠가 가상, 증강현실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각 대학은 기존 사이버 캠퍼스의 외연을 더욱 확장하여 외부의 문화적 자극과 관련한 지식 콘텐츠를 수용, 보관, 소환, 구성하는 공간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일련의 교육 전달 공간의 개발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해 그 활동 영역이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특히 많은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에 대응하려면 표준화된 사고체계에 대한 학습 외에도 학습자 개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융합적 교양교육 시스템의 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그 평가 기준 역시 통합적 지식 학습의 결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화 과정에서 강조되던 독서, 토의 및 토론, 자기표현 등의 교육이 지속해서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주도학습은 학생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학습 환경 및 교육 콘텐츠와 이를 뒷받침하는 교수자의 학습 전략이 함께 마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로즈 외, 2010).

이처럼 사회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학생들의 학습 욕구는 이미 지식 시장의 세분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공교육의 부족한 공간을 다양한 사적 교육체계가 대체하는 지식플랫폼의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지식교육 콘텐츠 플랫폼상에서 개인 기호에 기반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대학 교양교육의 지식 콘텐츠와 전달 매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전통적 인성 및 소양 교육의 사회구성성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위험의 상징적 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사회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연대의 가치에 대한 교육은 사이버 사회의 도래 현상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결국 위험에 대한 대응은 지식체계를 수동적으로 수용만 하던 객체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학습자로서가 아니라 자기(self) 중심의 기호를 선택하게 하는 주체적 문화자본을 습득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이버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한 사회를 구성하는 성인 학습자의 개별화된 지적 욕구의 만족을 추구해야 하는 대학 교양교육의 사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 V. 결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위험사회의 여러 양상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적 가치에 입각한 다양한 교육체계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이버 사회로의 전이에 따른 구조적 연결망의 확장을 통한 연대적 가치의 본질을 부각하는 집단 정체성의 의미도 중요해지고 있다. 위험사회로의 진입으로 사회체계가 재구조화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은 이에 대처하고자 근원적인 성찰을 하기에 이르렀다. 인간 개인의 새로운 자아상에 대한 감성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대학 교양교육 체계는 현재의 위험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교육 커리큘럼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이버공간 내 개인화된 생활문화의 네트워크 체계가 고착화되어 왔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지구적 수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인간은 개인적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위험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 간 의사소통을 통해 새롭게 변용된 사회문화적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사회연대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도 특히 사이버공간 내 집단지성에 의한 지식체계가 위험 극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과학의 기초 학문 분과 영역에서 추구하는 인성, 소양교육으로서의 학술적 내용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하고 있다.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기와 맞물려 전 지구적 범위에서 나타난 코로나 사태라는 돌발적 위험상황은 결국 지금까지 인류를 지탱해온 지식 콘텐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융합형 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진화적 지식 틀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교육체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각 대학은 기존의 진화적 사고 속에 적층된 전문지식 외에 인간의 실제적 삶과 관련한 대학 교양교육 콘텐츠 개발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학 교양교육 체계는 이 시대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적 문화코드를 발굴하고, 복합적 사고체계에 의한 상상력을 통해 이성과 감성을 결합하여 삶을 성찰할 수 있게 한다.

대학의 교육자들 역시 교양교육 콘텐츠와 관련한 융합학문적 논의를 고려하여 다양한 체험형 지식체계를 축적하고, 변화된 교양지식 전달체계의 기능적 확장과 대안적 생태계 모델의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최진·권선영, 2020). 보편적 지식체계 내 인문·사회과학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기초적 삶의 가치와 사회적 역량 강화를 확장함으로써 교수자들은 학습자 개인이 스스로 실존적 삶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협력적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계획에 대한 교수자의 성찰,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 담론의 범위, 그리고 학습자의

지식 함양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로즈 외, 2010; Friend & Cook, 2000; Walther-Thomas et al., 2000).

사회화 기관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이미 사회화 과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회적 상황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지식을 근간으로 새로운 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더욱이 고등학문체계로서의 대학교육에서도 이 같은 대안적 교양교육 체계 및 지식 콘텐츠의 확장과 관련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원래 보편적 지식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지식체계를 연구, 전달하는 대학 교양교육 분야에서는 현재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치에 입각한 문화적 산물을 연계하는 심화 수준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합리성 추구의 한계를 넘어선 상상력의 문화는 최근 복잡계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생활양식이 되었다.

이제 이 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교양교육에서는 융합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한 학습자의 사실적 지각 능력과 함께 새로운 지식을 대하는 상상력을 함께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대안적 대학 교양교육은 학습 과정에서 기존에 교육되었던 기초 교양지식의 영역을 확대하고, 학습자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적 추론을 하게 도와줌으로써 집합의식 체계로서 혁신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동력을 제공하게 된다(전은미 외, 2016).

위험의 상징적 확산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개인의 창의적 역량 확보에 필요한 올바른 사고체계 정립을 위해 고등교육체계로서의 대학교육 내 교양교육의 영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그간 적층된 지식 콘텐츠를 신속하게 융합적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하나의 학문체계가 완결되기까지는 치열한 학문적 논쟁을 거쳐야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형화된 이론들은 다학제적 성격을 띤 교육지식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이제 기존 이론 구조에 더하여 복잡하며 우연적인 위험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과 현실을 아우르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대학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때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학문 영역은 유사한 지식 내용들의 기계적 결합이 아닌 독립된 학술 영역으로서 충분한 지식 콘텐츠로서의 범위와 깊이를 지니고 있다. 사회연대적 가치에 입각한 지식 공유 현상은 사이버공간과 같은 새로운 생활영역이 창조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작용을 하게 된다. 현재의 위험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체계에서 더 진화된 대안적 대학 교양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해당 교육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행정적 지원과 함께 학술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교수자 간, 학습자 간,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 체계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문조, 2013, 『융합문명론』, 나남.
- 김정효, 2020, 「보드리야르와 스포츠의 포스트모더니티」,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제28권, 1호, 한국체육철학회, 31-41.
- 로즈, 데이비드·메이어, 앤·히치콕, 척, 2010, 안미리 외 공역, 『보편적 학습 설계』, 한양대학교 출판부.
- 만응기·김상학, 2021,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심리학적 고찰: 집합기억과 시민역량 개념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40권, 2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57-84.
- 벡, 울리히, 2006, 홍성태 역,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 이진우 엮음, 1993,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이해』, 서광사.
- 전은미·조의영·김윤정, 2016, 「국내 간호학과의 인문사회교육현황과 과제」, 『대학교양교육연구』 제1권, 1호,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137-163.
- 최진·권선영, 2020, 「몸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교양교육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31권, 2호, 한국무용교육학회, 63-84.
- Beck, Ulrich & Beck-Gernsheim, Elisabeth, 2001,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London: SAGE.
- Friend, Marilyn & Cook, Lynne, 2000, *Interactions: Collaboration Skills for School Professionals*, 3rd ed., New York: Longman.
- Giddens, Anthony, 1997, *Sociology*, 3rd ed., Cambridge: Polity Press.
- Halbwachs, Maurice, 1980,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 & Row.
- Putnam, Robert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 vol.13(Spring), 35-42.
- Putnam, Robert D.,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lther-Thomas, Chriss, Korinek, Lori, McLaughlin, Virginia L. & Williams, Brenda Toler, 2000, *Collaboration for Inclusive Education: Developing Successful Programs*, Boston: Allyn & Bacon.

## **A Study on the Need for Alternative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to Respond to the Symbolic Spread of Risks**

Min, Woong-Ki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need for alternative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against the symbolic spread of various risk situations in a cyber society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volution.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era is the fact that the ideological meaning of the convergence culture pursued by postmodernism is being combined. In particular, the value of social solidarity against risks from the process of expressing cyberspace is spreading further as human subjective thoughts become networked. Each university is developing various convergent educational content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liberal arts subjects based on the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required in the full-fledged cyber society. Alternative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needs to be expanded as an independent convergence discipline to respond to the symbolic spread of new risks along with the existing education of knowledge and character-building.

**Keyword** ●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risk, network, value of social solidarity, cyber society

■ 논문투고일 : 2024. 05. 24. ■ 심사완료일 : 2024. 06. 08. ■ 게재확정일 : 2024. 06. 09.